

전일동향

전일대비 3.90원 상승한 1,438.90원에 마감

17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장대비 3.90원 상승한 1,438.9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2.00원 상승한 1,437.00원에 개장했다. 환율은 달러 약세를 따라 1,434원 초반까지 하락했으나 달러 강세 전환 및 국내증시 외국인 순매도에 반등하며 1,439원에서 고점을 형성했다. 이후 1,430원대에서 등락하며 1,438.90에 종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장중 변동 폭은 5.1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34.14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15:30)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437.00	1439.80	1434.20	1438.90	1436.60
엔화	930.79	939.43	929.43	937.23	-	
유로화	1507.96	1513.32	1506.20	1509.12	-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91	-4.78	-11.89
결제환율(수입)		-0.65	-3.91	-10.14	-24.04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FOMC 경계감에...1,430원대 중후반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2.0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438.90) 대비 0.15 상승한 1,437.0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FOMC 경계감 속에 보험권에서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11월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0.7% 증가하며 예상치(0.6%)를 상회했다. 같은 날 발표된 11월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1% 감소하며 예상치(0.3%)를 하회했다. 엇갈린 소매판매 및 산업생산 결과에도 시장에서는 연준의 12월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었다. Fedwatch에서는 12월 및 1월 금리인하 확률을 각각 95.4%, 16.3%로 반영했다. 미국 국채금리는 산업생산 부진 및 12월 인하 기대에 장단기 모두 하락 마감했다. 달러화는 FOMC 경계감 유입 등에 상승 전환하며 전일대비 0.09% 상승한 106.98pt로 마감했다. 금일 환율은 달러 강세 전환과 외국인 국내 증시 이탈 등으로 상승 압력 우위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FOMC 결과를 앞두고 경계가 고조되며 변동성이 제한된 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외환당국의 적극적인 시장안정 조치는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433.20 ~ 1441.20 원
----------------------	----------------------------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7012.43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0.10원 ↑
	■ 美 다우지수 : 43449.9, -267.58p(-0.61%)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75.81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3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